

이 산 아래에 있고 임란 때 의병장 김언륜(金彦倫)이 전술을 연마하던 곳이다.

2) 성황당(城隍堂)

독산(獨山) 안에 성황이 있어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올린다.

3) 옥정사(玉亭寺)

북면 고목리 지장동 가치산 아래 불민골(佛信谷)에 있는 절로 승려 대각(大覺) 서순석(徐順石)이 신도 남재칠(南載七) 외 여러 명과 더불어 1954년 5월 16일에 칠성각을 창건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1955년에 신도들이 법당과 객사 2동을 세웠다. 승려 대각이 입적하자 그의 아들 승윤(乘潤) 서창원(徐蒼圓)이 취임하여 수행하다가, 10년 후에 신도들의 뜻을 모아 절터를 확장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다. 1997년 4월 16일에 기존의 법당, 칠성각, 객사 등을 모두 철거하고 절터를 확장하여 대웅전을 중창하였으며, 산신각, 요사, 부속사 등 5동을 신축하였다.

4) 학수샘

노송(老松) 아래 학이 물을 먹었다는 샘(泉)이 지정마을 안에 예로부터 있다. 지금도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의 웅덩이가 있어 학수샘(鶴水泉)이라 부른다.

제2절 고목2리(古木二里)[속명: 무령(武靈)·기곡(基谷)]

1. 마을의 자연환경

태백준령(太白峻嶺)인 쇠치봉(鼎峙峯)의 동쪽 지맥(支脈)이 내평들을 안고 있으며, 동쪽으로 덕천리(德川里) 마분동(馬墳洞)과 인접하고 동해와 후정리의 장수봉(峯)이 바라보인다. 서쪽은 범재(虎嶺), 남쪽은 남산(南山)과 시목리(柴木里)가 있으며, 북쪽은 뒷산인 봉화산(烽火山)이 있고, 시리골과 수리골 너머에 울진원자력발전소가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최근 신한울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외지인들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단독주택을 대거 조성하였다.

2. 마을의 역사

1390년(공양왕 2)경에 최복하(崔卜河) 선비가 큰 들(野) 안에 아늑한 마을을 개척하여 동명(洞名)을 무령(武靈)이라 하다가 후에 기곡(基谷)이라 하였다. 금성동(金聲洞)은 의령 남씨(宜寧南氏) 집성촌(集姓村)인 자연부락으로 옥계서원(玉溪書院)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270세대가 거주하며 영양 남씨(英陽南氏), 의령 남씨(宜寧南氏), 현풍 곽씨(玄風郭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정선 전씨(旌善全氏) 등이 세거하며 각 성씨가 대거 이주하였다.

4. 마을의 특징

1) 가물나들

옛날 무령현 앞 내평들에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면서 해수(海水)가 들어와 호수를 이룬 곳으로 산(山) 아래에 있는 내평들을 가물나들이라 한다.

2) 성황당(城隍堂)

기곡리(基谷里) 안에 당(堂)집과 소나무로 된 성황당이 있고,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올린다.

3) 옥계서원(玉溪書院)

옥계서원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석당(石堂) 김상정(金相定), 만은(晩隱) 전선(田銑)의 세 유현을 모시는 서원이다. 현재 유허각이 남아있다. 송시열은 조선 중기 정치·사회 전반을 아우른 정치가이자 도학가이다. 기호학파의 주류로서 ‘도덕적 카리스마로 문화국가의 방향을 잡은 선비’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정은 광산(光山)김씨로 조선 영조 때의 성리학자이다. 이기혼융설(理氣混融說)에 기반을 둔 정통주의적 예학론의 창시자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6대손으로 1788년 8월에 올진(蔚珍) 현령으로 부임해 올진지방 예학의 기틀을 닦았다. 『석당유고(石堂遺稿)』 6권이 있다.

4) 유허비(遺墟碑)

충절공(忠節公) 대사간(大司諫) 최복하(崔卜河) 선생이 고려복벽운동(高麗復辟運動)을

하다가 절의를 지킨 충절의 얼을 기리고자 강릉 최씨(江陵崔氏) 후손과 울진군에서 기곡동 무령현(武靈峴)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제3절 고목3리(古木三里)[속명 : 시목리(柿木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덕천리(德川里)와 접하고 동해가 바라보이며, 서쪽은 장대산(長大山) 화성리(花城里), 용장동(龍場洞)과 인접하여 있다. 남쪽은 시정재가 가로놓여 울진읍으로 가는 구길(舊路)이 있으며, 북쪽은 뒷산(山)인 남산(南山)이 마을을 둘러싸고 마을 안에 동묘산의 놀이동산이 있다. 2007년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대규모 근로자 숙소와 식당이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600년경에 담양인(潭陽人) 전승록(田承祿) 선비가 마을을 개척할 때 지형(地形)과 주위(周圍)가 좋았고, 뒤로는 큰들(內坪)과 도로를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자생(自生) 감나무가 많아 시목동(柿木洞)이라 하였다. 그 뒤 약 100여 년 후에 영양 남씨(英陽南氏) 형제가 마을 서편에 집을 짓고, 마을 가운데에 있는 봉우리를 경계하여, 동쪽은 전촌(田村), 서쪽은 남촌(南村)을 형성하였다. 오늘날 두 성(姓)이 호수(戶數)도 같고, 재산도 같고, 인재등용(人材登用)도 같다 하여 인근 마을 사람들이 ‘저울대’ 형국이라고 일컫는다.

3. 가구 분포

총 39세대가 거주하며 담양 전씨(潭陽田氏), 영양 남씨(英陽南氏)의 집성촌이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城隍堂)

당(堂)집과 노송(老松)으로 된 성황당이 마을 앞에 있는데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올린다.